



중독



김정자 본지 논설위원

컴퓨터 게임 중독이란 말이 이전 낯설지 않다. 그러면 컴퓨터로만 글 써 버릇하는 것은 어떨까. 중독이란 단어가 단순히 마약류 등 약물이나 기호품 음식에 의한 기능장애만이 아닌, 어떤 일 자체나 카지노 등 게임, 그리고 광범위한 생활습관에 적용해 쓰이고 있다

'편리함에 의한 중독'이라 할까.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컴퓨터에 의존하고, 컴퓨터에 의해 '길들여지고 있다.' 컴퓨터만이 아니다. 냉장고 세탁기 전화 에어 콘 등 수많은 생활 가전제품도 우리가 그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길들여지고 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T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는 또 어떤가. 아예 우리의식을 통째로 길들여려는 음모를 슬쩍 감추고 있지 않은가. 중독이란 무엇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선택지폐라는 그의 작품 '어린왕자'에서 '길들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지구의 사정을 잘 모르는 어린왕자에게 여우가 '길들여지는 것'을 설명해 준다. '길들임'은 '관계를 맺는 것' '관계를 맺는 대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헤어질 때는 슬픈 것' 등이다. '길들여 짐'의 대상은 인간뿐 아니라 권력 지위 재산 문화 그리고 편리함을 주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가 포함된다. 길들여지면 당연히 그 대상에 머물고 싶어진다. 단단히 길들여진 상태가 중독일 것이며 지금 우리생활은 어느 것 하나 중독 없이 진행되는 것이 있을까 싶다. '머무름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새삼스러운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자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마감하는 것을 말하리라. 자살하는 사람과 두고 아웃사이드들은 이렇게 말한다. "오죽했으면 죽음을 택하겠는가" 혹은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살지"라며 당사자는 죽음을 통해 말이 없고 산자들이 모여 이리저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뒤집어 씌운다.

이 두 번외자들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최근 잇달아 보도되고 있는 자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다. 신문에도 나지 않고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에 큰 충격을 남기고 자살한 재벌의 총수도 있다.

이름이 있건 없건 간에 자살이라는 행동을 선택한 결과는 동일하다. 선택하게 된 원유는 제각기 인생이 다르듯 다른 의미를 지니겠지만 외형상 우리들에게 남기고 보여주는 모습은 같아 보인다.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을까"라는 반응은 자살이 적어도 자신의 선택이긴 하지만 자신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불가에서는 생명존중사상을 바탕으로 깔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살이란 타살이란 하찮은 별개의 생명이 이르기까지 살생을 금하는 가르침을 준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라고 해도 이런 생명의경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와 닿는다. 그러나 "오죽했으면"하는 전제를 우리들은



불자 세상보기

이근후

이근후 열린마음의원 원장

자살은 '사회적 살인'

심각하게 되뇌어 보아야 한다. 아무리 근기가 강한 자아를 지닌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이 그를 압박해 간다면 그는 죽을 이외의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환경이라도 이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에 좌절하는 분들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개인은 모두 정서적 면역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사회가 병들어 있는 정신분열증적 사회환경이라면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살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미

리 짜여진 미로게임처럼 미로 속에 갇힌 개인은 그 막다른 골목의 좌절에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내 물린 죽음이 자살일까 타살일까! 꼭 남이 자신을 살해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또다른 자아에 의해 죽음에 내 몰린다면 이는 분명한 살인일 것이다. 사회적인 살인이란 이름을 붙이고 싶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본능을 죽음의 본능과 삶의 본능이 있다고 말한다. 이 두 본능적 에너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인격이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회적 환경의 압

박에 따라서 개인은 자살과 극복을 선택하지만 이는 오로지 압박의 강도가 문제가 된다. 꿈이 없거나 자존감의 손상이나 삶의 가치를 잃는 등 자괴된 자아라면 죽음의 본능이 손질할 것이다. "죽을 용기를 갖고"라는 말도 산자의 시야가 아닐 뿐이다. 자살에서의 죽음은 용기와는 다르다. 자신이 자의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선택이라기 보단 그런 외부 또는 내면적인 압박에 내어 물려 버림 끝에 추락하는 것이니 어찌 선택이란 말을 쓸 수 있겠는가. 죽음은 선택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다.

요즘은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자살을 보도하는 자세가 너무나 이분법적인 논리로 보도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 자살은 그렇게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마음의 역동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풀어갈 수 없는 죽음이다.

우리들은 최근에 와서 생명의 존엄과 자비로움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와 남, 나아가 못생김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평화와 화해, 2003 불교평화포럼 개최

2003 불교평화포럼이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8-9일 파주 보광사에서 개최됐다. 실천불교 전국승가회(최무대행 일문)와 불교포럼(공동대표 김연규, 임완숙, 김광해)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1부 '한반도 위기를 진단한다'에 이어 2부 '지혜로운 대응은 무엇인가'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포럼이 끝난 뒤 '2003 불교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정리-남동우 기자



박명림, 서승, 심재룡, 장지현

원호 화쟁사상 바탕에 공존 모색

박명림(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복합 평화연환고리 형성 중요

박명림 교수는 '한국의 평화비전과 평화구상:100년 전쟁에서 100년 평화로' 주제발표에서 "평화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인가(평화의 주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평화의 과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평화의 비전과 목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평화의 방법과 전략) 등 네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제도도 통한 평화 △시장·통합을 통한 평화 △민주주의를 통한 평화 △문화를 통한 평화 등을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경로, 과정으로 규정했다.

박 교수는 또한 "북핵위기를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평화체제구축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남한의 시민사회로부터 발원해 평화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를 향한 의회→남한정부·북한정부→국제사회(미국·중국·유엔)로 이어지는 거대한 복합 평화연환고리 형성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승(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법학부 교수)

동북아시아 일본 참여 필요

서승 교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문제-일본의 역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냉전붕괴이후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위기

를 생산해 왔으며 일본은 그러한 미국의 전략에 편승해 동북아 위기를 재생산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고 북한 때리기에 광분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동북아시아와 일본의 역할에 대해 "현재 일본은 전쟁이나 평화나, 미국이나 아시아나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동아시아시대에 일본의 실질은 있고, 동북아시아를 열기 위해선 일본을 반드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6자회담에 대해서 "미국은 책임지지 않고 회의에서 분규를 일으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방일에 대한 정책건의'에서 △'동북아시아 대화기구' 창설 △3+3동북아비핵불가침지대조와 등을 제안했다.

심재룡(서울대 교수)

이해관계, 갈등 대화로 해결

심재룡 교수는 '함께 사는 공존의 평화-불교의 화쟁을 중심으로' 기초발제를 통해 "신라 승려 원효는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통해 특정 종파나 경전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는 종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모든 경전이 저마다 상대적 입장을 서있음을 주장했다"며 "우리는 통일 이후 공산주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사상적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효가 다시 태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온갖 다양한 생각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 사람들 서로를 존중해주는 한국 사회를 선택했으리라 확신한다"며 "오직 공산주의가 싫어서 50만 명 100만 명이 죽더라도 차라리 전쟁하는 게 낫다는 주장은 원효의 화쟁사상에서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 포기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지현(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경협, 민간지원 다양, 다변화 돼야

지현 사무처장은 대북 교류를 할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알려줄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올 것은 무엇인가 등 세 가지 원칙을 갖고 한다"고 소개했다.

또 "정몽헌 회장 죽음에 대한 상실감은 우리 못지않게 북한이 더 클 것"이라며 "이런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현 사무처장은 민간교류의 문제점으로 △지원 없이는 교류 없다는 명제 형성 △대북 지원을 인도적 지원(생필품 등)으로만 제한 △지원 분야나 주체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남남갈등을 조정 등을 지적했다.

지현 사무처장은 "중요한 것은 민간지원을 다양화 다변화시켜야 한다"며 "남북경협 또한 더욱 활성화돼야 하나 정부가 더 이상 경협을 기업이나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희의료원의 노인복지사업 참여

경희의료원(원장 윤종이)이 지역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하기로 해 시간에 흔흔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경희의료원은 13일 성북노인종합복지관과 건강상담, 무료탁 독거노인 주치의 및, 건강강좌 및 정기건강검진 등을 무료로 실시하는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경희의료원은 지역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은 물론 저소득 노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노인의료복지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장군속미

부산시·일부시민단체, 잇속 행기

부산시와 부산상의,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고속철도 조기개통을 주장하고 나서 환경보다 단체들의 잇속을 행기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남중 고속철도 조기건설 범시민 추진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과 정부의 소신 있는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부산시의 일부 시민단체들 때문에 환경은 몸살을 앓고 있다.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회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범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 또 만들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 법을 전하세요!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 앞면 : 그리움의 노래 -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의 세계가 어떤곳인가를 알게하고 염불참선의 진미를 들려줍니다.
- 뒷면 : (1)선근인연가 - 민족과 국가의 인연에서부터 고향. 이웃 가족의 인연이 맺어지기까지 인연의 고리를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2)부모은중가 - 부모! 오늘의 우리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식이면 눈물없는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은혜의 노래 (3)불전참회가 - 참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노래합니다. (4)회향산회가 -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부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인욕을 당부하셨을까요? 들어보면 알게됩니다.

● 책+테이프 = 5천원 / 입금은행인 : 우체국 501023-01-000379(금산정사)

※ 단체주문환영. 법보시 하실 분은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우송 신청전화 (061)843-8822 금산정사

납골당 설치 및 운영방법 안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묘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화장 장례 정책' 이 효과를 보게 되어 대부분 국민들이 화장 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점차 화장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지만 아직 납골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납골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골문화발전과 사찰 납골당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장안사에서는 획기적인 "사찰 납골 활성화 사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범위]

- 납골(추모)당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찰
- 납골(추모)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찰
- 납골 시설 설치부지가 협소한 사찰

해결방안

[장안사 지원사항]

- 납골당 시설 및 관리 운영에 대한 노하우제공
- 각종 법률적인 인허가 문제 해결
- 최고 시설의 인치터 저가보급
- 각종 제사 유지로 부대수입 기대

초기 기획에서부터 납골시설 허가, 설치공사, 신도확보, 납골당 운영까지 책임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031)901-1954, 017-755-1954, 011-276-2135

주최 : 장안사 장안사직원 협력 : 한국납골문화연구원